



양양소식

2021. 9. Vol. 316

기획특집_ 서핑 마니아 배우 박호산, 양양에 반하다





폭염에도 불구하고 방역 최일선에서 신속한 검사,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의료진, 보건소 대응요원 등
현장 근무 직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희망양양

- 4 기획특집_ 서핑 마니아 배우 박호산, 양양에 반하다
- 8 마을가는 길_ 양양읍 조산리
- 12 맛있는 양양여행_ 남자들끼리 개떡처럼 끓여도 맛있었던 천렵음식
천렵(川獵)놀이가 만든 양양 '관습적 놀이밥'



의기양양

- 14 의정소식_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예산 성립전 사전사용 검토
- 16 숨어있는 향토사 이야기_ 朝鮮 哲宗 때 양양의 義人
鄭元基 에게 임금이 내려준 철비의 사연을 알아본다.
- 18 YANGYANG NEWS
- 21 양양, 어제 그리고 오늘_ 현남면 남애항

열린양양

- 22 문화마당_ 이달의 책이야기 / 추천신간
양양작은영화관 상영 예정작
- 24 정보꾸러미_ 공공기관 행정정보 / 일자리 정보
- 26 공익광고
- 28 2021 양양군 UCC 공모전

양양군 SNS 주소

- 블로그 : <http://blog.naver.com/likeyyang>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likeyangyang>
-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likeyangyang_official
-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yangyangcity_official/



양양소식 · 316호

| 발행일 2021년 9월 1일 | 발행인 양양군수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

양양군정소식지 「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입니다.
구독은 tashidele90@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서핑 마니아 배우 박호산, 양양에 반하다

서핑의 매력에 반해 양양 주민이 되려구요.

“양양, 양양, 양양, 양양, 양양~~~~~”

최근에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별다른 말도 없이 '양양'을 외치는 레트로 감성의 광고가 인기다.

어떤 배경 설명도 없이 서프보드를 들고 양양을 외치며 해변 풍경을 보여주는 박호산 배우의 '양양 홍보영상'이다. 양양 사람이냐 했더니, 아니라고 한다. 박호산 배우는 서핑에 반해 양양에 반해버린 또 한 사람의 서핑마니아였다. 내년이면 진짜 양양 사람이 된다는 박호산 배우는 열심히 '양양'을 외치며 양양의 매력을 발산시키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



서핑 때문에 양양 해변에 이끌리다

몇 년 전만 해도 서핑은 외국의 어느 해변에서나 즐기는 해양 레저 스포츠로 여겼다. 하지만 이제 '서핑=양양'이라는 말이 등식이 되었다. 서핑을 하기 위해 양양 해변을 찾는 관광객이 지난 3년간 평균 20%씩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곳이든 자유롭지 못했다. 양양 해변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더욱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면서도 서핑의 열기는 높은 파도를 넘는 서퍼처럼 꾸준히 치솟았다. 올해 유난히 뜨거웠던 무더위도, 코로나19의 경각심도, 파도를 타듯이 높아졌다가 낮아지며 양양 해변을 달구었다.

양양군이 KT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양양을 찾은 서퍼는 2018년 41만여 명, 2019년에는 45만여 명, 2020년에는 56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양양 서핑 해변을 찾은 서퍼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박호산 배우도 일주일에 2~3번 서울과 양양을 오간다.

박호산 배우는 1996년 뮤지컬 '겨울 나그네'로 데뷔한 이후, 극단 연우무대와 극단 우인을 거쳐, 현재 극단 맨시어터의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25년 차 배우이다.

2017년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문래동 카이스트 역할로, 말 그대로 뜨게 된 그는 TV 드라마로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은 후, 역시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철없는 만형 역할을 맡으며 연기력을 인정받고 꾸준히 연극 무대와 TV 프로그램에서 활동하는 인기배우이다.

2016년부터 양양해변을 꾸준히 찾아오면서 어느새 서퍼 6년 차가 된 그는 양양의 산과 바다, 자연에 푹 빠져있다. 가끔 서핑 보조강사로 활동하다보면 사람들의 놀라며 '박호산 배우죠?' 라고 묻는데, '많이 닮았다고 하네요.' 하고 웃어넘기며 즐거운 양양살이를 하고 있다.

"2016년에 서핑을 처음 알게 됐어요. 원래 운동을 좋아해 볼링, 스케이트보드 등을 즐겼는데, 서핑을 한 후로 무조건 서핑이에요. (웃음) 연극인이자 배우로 시간 활용이 불규칙하면서도 자유로우니까, 시간이 나면 그냥 양양으로 와요. 너무 좋아요."



일주일에도 2~3회씩 서울과 양양을 오가는데, 일을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다. 그렇다면 아예 양양에 살면서 일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내린 결론이 양양으로 이주하는 것이라

양양 홍보대사 그리고 서프구조대원이 되다

이렇듯 절반은 양양 주민이 된 박호산 배우는 죽도해변의 서퍼들과 함께 활동하던 중 양양 홍보영상에 불현듯 출연하게 되었다.

“양양으로 이주해 서핑을 즐기는 서퍼들 중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했던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의견을 모아 양양 홍보영상을 찍었죠.

양양은 그냥 좋으니까 ‘양양, 양양, 양양~~’이라는 리듬에 맞춰 찍어보자고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랬더니 다들 재미있라며 즐겁게 촬영했죠. 저도 이제 양양 사람이니까 출연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탄생한 양양 홍보영상은 말 그대로 양양의 주민들이 만든 셈이다. 그 어느 때보다 즐겁게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서핑을 즐기는 친구들과 마음을 모았기 때문이었다.

고 한다. 가족들과 장인, 장모님까지 모두 양양 주민이 되다니 서핑의 매력이 온 가족을 양양으로 불러 모은 셈이다.

박호산 배우는 서프구조대원으로서 서핑을 즐기면서 동시에 안전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서핑은 개인이 즐기는 레저스포츠이지만 해변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 등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고, 안전을 위한 방안이 가장 절실하다는 데 공감하기 때문이다.

해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변에서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111명의 서퍼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서프구조대는 양양군과 속초해양경찰서가 함께 참여한 전국 최초 민·관 구조체계의 단체로 지난 7월 21일에 출범했다.

익수자가 발생할 경우에 서퍼들이 서프레스큐(서프보드)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 다른 구조방법보다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지난달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갯마을해수욕장에서 표류객 2명이 발생했을 때에도 서프구조대 덕분에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었다.





배우, 서퍼 그리고 지역민으로서 양양을 사랑하는 방법

이제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은 '특별한 그 누군가'가 아니다.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서핑학교와 강습이 열리고 반백의 중년층도 서핑을 즐긴다.

외지인들의 문화가 지역의 문화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외지인이었지만 양양으로 이주하면서 지역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주민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것은 당연하고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박호산 배우는 말한다.

“저는 언제나 경쟁에 노출된 연예인이지만, 양양에 오면 서퍼이자 주민으로서 편안하고 즐거워요. 구조대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고요. 저는 배우이기도 하니까 기회가 된다면 양양을 홍보하고 알리는 일에 적극 나서야죠. 아주 즐겁고 재밌어요.”

서핑에 반해 양양으로 온 사람들은 바다와 산, 계곡 아름다운 자연 덕분에 양양살이에 주저하지 않는다.

박호산 배우도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친구들과 즐겁게 서핑을 하는 것이 꿈이다. 양양에서.

〈글·사진 : 편집부〉



村村

발걸음 촌촌,
마을가는 길



양양읍 조산리

유구한 역사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은 마을
소나무와 함께 해 온 세월 그리고 추억
상생과 협력으로 함께 이루는 더 큰 미래

조산리(造山里)라는 마을 이름에는 마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산 하나를 기꺼이 쌓아 올린 선조들의 애향심이 깃들여 있다.

그것은 눈앞의 이득보다 후대를 생각하는 마음이기도 했다. 선대의 정신을 이어받은 자손들은 바람의 횡포로부터 마을을 지켜 줄 방풍림을 일구었고, 현재 그 숲은 주민들을 비롯해 마을을 찾은 모든 사람에게 휴식과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조산리 사람들은 대대손손 자연과 함께 상생하며, 자연에서 얻은 선물을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왔다. 그 욕심 없는 선의가 예나 지금이나 이 마을의 가치를 더욱 값지게 한다.



산을 쌓고 숲을 일구는 마음으로

양양 시내에서 7번 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10분 정도 달리면 큰 솔밭을 에워싸듯이 집들이 들어선 조산리에 이른다. 해안을 끼고 있지만, 항구가 없어서 어업보다는 농업이 발달한 곳으로, 주민 대부분이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조산리에는 마을 이름에 얽힌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진다. 지금으로부터 360여 년 전, 산이 없는 마을에 산이 있어야 마을이 번창한다는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은 일일이 흙을 날라 산 하나를 만들었다고 한다. 만들 조(造), 뫼 산(山)이라는 글자가 마을 이름 안에 담기게 된 사연이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은 추측만 무성할 뿐 산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아는 주민들은 없지만, 마을의 미래를 위해 산 하나를 쌓아 올린 정성 어린 마음은 지금 이 고단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준다. 조산리 사람들은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애향심과 단결력으로 마을의 발전을 위해 애써왔다.

조산리의 선조들이 마을을 위해 산을 만들었다면, 그 후손들은 숲을 일구었다. 지금의 낙산해변에 인접한 솔밭은 1960년대에 마을 주민들이 직접 조성한 방풍림이다. 마을이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던 큰 솔밭과 해변 사이에 소나무 묘목을 심어 울창한 숲으로 키워낸 것이다. 조산리에서 나고 자란 최의규 노인회장(78세)으로부터 그때 상황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그때 당시 여기에 미군 부대가 주둔해있었는데 미군들이 야외극장을 만든다고 진흙을 쌓아 놓은 게 있었어요. 그 흙을 가져다가 나무를 심었습니다.

경운기나 수레도 없어서 마을 분들이 흙을 지게에 지고, 머리에 이고 일일이 퍼다 날랐어요. 그때 중학생이었던 저도 어른들 틈에서 열심히 흙을 옮겼죠. 그 작업이 대략 70일 정도 걸렸어요.”

이렇듯 조산리 사람들에게 소나무는 각별하다. 그들은 수백 년 전에 너른 솔밭에 집을 짓고 살면서 한 마을을 이루었고, 해안가에 소나무를 심어 재해에 대비했다.

가을에 떨어진 소나무 낙엽을 주워 불을 때면서 추운 겨울을 나기도 했다. 태어날 때부터 소나무와 키 재기를 하며 자란 최항규 이장(59세)은 솔숲이야말로 아이들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고 말한다. 양양이나 속초 주민이라면 소풍을 다녀가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일명 ‘핫플레이스’였던 조산리 솔밭은 마을 밖 사람들에게도 추억의 장소이다.

그러고 보면 360여 년 전에 산을 쌓아 올린 마음과 50여 년 전에 숲을 일군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우리가 살아왔고,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터전을 모진 풍파로부터 지키고 싶은 바람이 깊은 뿌리가 되어 조산리를 든든하게 지탱하고 있다.



자연 안에서 모두가 상생하는 법

솔밭과 근사하게 어울리는 해변 역시 조산리의 자랑 중 하나다. 현재 3개리(조산리, 주청리, 전진리)에 걸쳐 펼쳐진 낙산해변의 명성은 바로 조산리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한때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해수욕장 명소로 이름을 떨쳤던 낙산해변은 오랫동안 경기 침체를 겪어오다가 최근 몇 년 사이 조금씩 활성화 조짐이 보인다. 양양군은 낙산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2014년에 조산리 솔밭을 활용해 화장실과 샤워장, 식수대 등을 갖춘 오토캠핑장을 마련하고 조산리 마을회에 운영을 맡겼다.

현재 조산리에서 위탁 운영하는 '낙산해변야영장'은 피서철 성수기에만 운영하는 송림야영장과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오토캠핑장으로 구분된다. 조산리 주민들은 해수욕장과 야영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쓰레기가 쌓이지 않게 부지런히 정리하고, 텐트를 설치할 때 소나무 뿌리가 다치지 않게 팻을 깊숙이 박지 말아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는다. 지금은 산림청과 양양군청에서 큰 솔밭과

어르신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조산리에 거주하는 주민 수는 약 250가구로, 그 중 절반이 고령층이다.

야영장이 있는 솔밭을 각각 관리하지만, 몇 년 전까지 마을 주민들이 잡목도 제거하고 병들지 않게 보살폈다고 한다. 마을 주민들이 조성한 솔밭이 캠핑족들의 보금자리가 되었다면, 낙산해변은 서핑족들의 성지가 되었다. 조산리는 서프시티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서핑 학교와 업무 협약을 맺고 낙산해변 일부를 해수욕객이 접근할 수 없는 '서핑 존'으로 아무 조건 없이 제공해 주었다. 전진리, 주청리, 조산리 등 3개 마을의 이장들과 마을 주민들이 마음을 모아 내린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최항규 이장은 말한다.

“양양에 서핑 문화가 많이 발전했는데, 낙산해변에는 서퍼들이 없어요. 이곳에서 서핑 학교가 운영됨으로써 서퍼들이 찾아오고 해변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이 해변 정화 활동도 많이 하시니까 여러모로 좋은 일이지요.”

최항규 이장은 서핑학교 관계자들을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을 담아 개별 ID카드를 제작해 나눠주기도 했다. 조산리의 솔숲과 바다에서는 원주민과 외지인이라는 경계가 사라진다. 그 대신 아름다운 자연을 공유하는 사람 간의 유대가 빛을 발하고 있다.

이장 취임 9년 차를 맞이한 최항규 이장은 마을의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지면서 농촌건강장수마을사업, 노인복지사업 등



주민 복지와 생활 개선을 위한 사업 유치에 주력해 왔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진행된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은 '조산리 한과' 상품화의 기틀이 되기도 했다.

부녀회에서 마을 주민들끼리 나눠 먹을 한과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마을 사업을 통해 시설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생산·판매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게 된 것이다.

한과 사업은 최근 해협(HACCP) 인증을 취득하면서 10여 명의 주민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마을 사업이 주민 소득으로 연결된 셈이다.

지난해까지 진행된 노인복지사업을 통해서는 두부 제조 시설을 완비했으며, 주민들을 중심으로 콩 작목반을 결성해 수확한 콩으로 두부를 만들기 시작했다.

마을 내 시식 행사를 진행한 후에 포장 용기까지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한 모씩 나눠주고, 마트에도 입점하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계획이 불발되었다. 지금은 애써 마련한 장비들이 일을 쉬고 있지만, 이번 가을에 콩을 수확하면 다시 두부를 만들어 볼 생각이란다.

임기 동안 쉴 틈 없이 마을 사업을 유치하고 추진해 온 최항규 이장은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행복이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우리 마을은 현재 연로한 분들이 많아요. 이장으로서 마을 어르신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하셔서 이 마을을



오래오래 지켜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노인들이 젊은 이들에게 대우받는 마을로 만들어 가고 싶어요. 그동안 사업을 통해 구비한 시설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 건강하게 잘 모시면 제 소임을 다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임옥란 부녀회장(71세)은 코로나19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한 어버이날 행사와 단체 관광을 진행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면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답게 이야기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조산리는 아름다운 자연과 유구한 역사를 지닌 마을이지만, 이 마을의 보배는 역시 '사람'이었음을 깨닫는다. 최의규 노인회장은 조산리 사람이 원래 조용하고 모범적이라 지금까지 언성을 높이며 싸운 일도, 크게 말썽을 피운 일도 없었다고 말한다.

그 온건한 성품이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 치환되고, 많은 이들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포용력이 되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 마을이 앞으로도 더 많이 갖기 위해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더 많이 나누기 위해 활짝 핀 손으로 서로 손을 맞잡고 걸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남자들끼리 개떡처럼 끓여도 맛있었던 천렵음식 천렵(川獵)놀이가 만든 양양'관습적 놀이밥'

오늘만 같아도 사나흘을 풍치(風致)가 있고 멋스럽게 놀 것 같다. 먼 반고(盤古)의 날에도 오늘같은 신명한 놀이가 있을 줄 알지만, 추렴(醞斂)만으로도 이토록 각별해지는 '놀이'라니 말이다.

아침부터 뭘 그렇게 채비할 것이 많겠냐며 부산스러워도 그럭저럭 리어카로 한 짐이나 된다. 좋은 자리 잡는다고 서둘렀는데도, 개천에는 이미 너댓의 천렵꾼들이 자리를 잡고 시끌벅적하다.

그래도 날(日)은 잡았으니 초지장(草紙張)같은 얇은 곳이라도 자리를 잡고 오늘은 남대천에서 '천렵(川獵)'놀이를 신명나게 놀아 볼 참이다.





‘뭇의 나눔’을 통한 양양 놀이음식의 원류

천렵(川獵)은 2009년 무렵, 족대나 통발을 이용한 물고기 잡이 방법을 제외하고, 전통 어로 도구였던 ‘투망질’이 금지되면서 점차 사라지게 된, 농경사회의 오랜 풍속(風俗) 놀이문화이면서 지역 원류음식을 만들어 낸 놀이문화였다.

상춘(常春)의 삼월 삼짇날에 무명 저고리를 차려입은 여자들끼리 진달래밭에서 화전놀이를 즐겼다면, 천렵은 봄부터 가을까지 남자들끼리 즐기던 ‘하천 놀이문화’였다. 날(日)을 잡아 통문(通文)을 돌리고, 추렴을 내고, 함께 어울려 음식을 만들며 즐겨 놀거나, 여자들의 화전놀이에 남자들이 따라나서지 않았던 것처럼, 남자들의 천렵 놀이에 여자들이 따라나서지 않으며 담소화락(談笑和樂)하던 풍류 놀이문화가 화전놀이였고, 천렵놀이였다.

화전놀이를 갈 때도 그랬지만 천렵놀이를 할 때도, 언뜻 그냥 놀고먹는 놀이 같아도 각각 암묵적으로 맡은 역할이 따로 있었다. 누구는 물고기를 잡고, 누구는 불을 피워 솥단지를 걸고, 누구는 어죽(魚粥)이나 어탕(魚湯)을 끓이는 등의 제 몫이었다.

옷통을 훌러덩 벗고 이렇게 물가에서 다 큰 남자들끼리 침버덩 거리는 꼴이 애들 같았던 천렵이었지만, 서로 다 짐하지 않아도 쌓을 ‘정(精)’으로 끈끈해지던 천렵놀이였다. 더욱이 천렵음식이라는 것도 참으로 묘미(妙味)해서 남자들끼리 아무렇게나 대충 ‘막’ 만든 음식 같은데도 손가락을 놓을 새도 없이, 웬만한 성찬(盛饌)의 고량진미(膏粱珍味)보다 더 맛이 좋았다.

그 대표적인 양양 천렵음식의 원류(原流)가 산촌지역의

‘뚜거리탕’과 어촌지역의 ‘섭국’이다. 이 두 음식은 천렵놀이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합(合)’의 음식이다. 작위적으로 만들어진 음식이 아니라, 추렴(秋斂)이라는 ‘뭇의 나눔’으로 놀이와 함께 더불어 함께 ‘합(合)’으로 만들어낸 음식이다.

삶의 도리와 부합하던 양양의 관습적 놀이음식

이러한 이유로 그 맛 또한 신통방통해서 조리법도 딱히 없는데, 막걸리 몇 순배에 취기가 잔뜩 오른 남자들끼리 개떡같이 끓여도 여자들이 끓여줄 때보다 이상하게 더 맛이 좋았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밖에서 먹을 음식’이라는 오감(五感)의 일탈도 한 뭇 한 뭇도 있겠지만, 이렇게 천렵음식은 먹기 전에 들뜬 마음을 억누르기 쉽지 않았던 풍속(風俗)과 풍습(風習)의 지역 원류 음식문화였다.

천렵놀이가 원초적 행동을 통한 ‘공감적 언어’라면 천렵음식은 ‘관습적 놀이밥’이다. 만경창파에 배 띄우고 ‘어만리(漁萬里)’를 쫓던 뱃사람들이 불땅(백사장)에 푸장(천막)을 치고 끓여 먹었던 ‘섭국’이나 400여 년 전, 송강 정철이 맛을 보고 이름 붙였다하여 유래된 ‘뚜거리탕’ 역시 산촌 사람들의 천렵 놀이음식으로 그들이 살아오면서 관습적으로 알게 된 마땅한 도리에 부합하도록 만들어 먹게 된 놀이음식이었다.

음식은 역사, 교류, 문화뿐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도 새롭거나 우연하게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되기도 한다. 비단 맛이라고 하는 음식뿐만 아니라, 가을 장독대에 말려 두었다가 피난길이나 먼 길을 떠날 때 비상식량으로 먹으려 했던 본래의 말린 장떡이 훗날에는 ‘감자적’처럼 부침개를 ‘적’이라고 하는 양양만의 음식언어로 남겨지는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점차 천렵놀이가 사라져 가는 즈음에 양양의 대표적 천렵음식으로 시작되었던 섭국과 뚜거리탕이 지역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음식과 음식문화로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양양의 음식과 음식문화를 대표하는 ‘관습적 놀이음식’이다. 글·사진 : 강원도 외식저널대표 황영철



김의성 의장 지방의정봉사상, 이종석 부의장 강원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



지난 8월 20일 황성군의회에서 열린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에서 김의성 의장은 '지방의정봉사상'을, 이종석 부의장은 '강원지방자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양양군의회 하반기 의장단으로 취임 후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발로 뛰며 동료의원들과 협업하여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참여



양양군의회 김의성 의장과 이종석 부의장이 지난 7월 26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않도록 많은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복지과 추진 업무에 관한 보고·청취

지난 8월 17일 간담회에서는 국가유공자 수당 인상 지원계획 및 저소득한시생활지원 예산 성립전 사전사용 계획에 관하여 복지과의 보고를 받았다.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 금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유공자를 예우하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하게 하고자 함이 목적이며, 향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 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지급시기에 맞춰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산 성립전에 사전 사용하고자 함을 보고하였다.

2021년 8월 기준 저소득층에 대하여 1인당 10만원씩 1회 지급하는 내용이다.



의원들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당 인상이 이뤄지는 만큼 관련 절차를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지원 또한 잊지 말 것을 강조했다.

의원 간담회 개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예산 성립전 사전사용 검토

양양군의회(의장 김의성)는 8월 중 두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예산 성립전 사전사용 계획에 대해 자치행정과의 보고를 받았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로하고 생활 안전망 확보를 위해 지급된다.

적기에 신속히 지급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을 예산 성립전 사전사용되는데 이는 읍·면사무소에 국민지원금 신청 및 접수, 상담 등 행정업무를 위한 보조 인력을 채용하고, 관련 홍보물 제작 등 사전 지원준비 및 선불카드발행비용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의원들은 코로나 19 장기화와 재확산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충에 심히 공감하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朝鮮 哲宗 때 양양의 義人 鄭元基에게 임금이 내려준 철비의 사연을 알아본다.

철종 11년(1860) 윤3월 강원도와 함경도지방에 대형산불 발생

지금으로부터 161년 전 철종 11년(1860) 윤3월에 관동지방에서 양양(襄陽)·통천(通川)·간성(杆城)에 대형산불이 발생했는데, 강릉(江陵)·고성(高城)·정선(旌善)의 화재도 모두 같은 날에 있었으며, 함경도의 안변(安邊)·덕원(德源)의 가호(家戶)가 연소(延燒)된 것도 같은 날이었는데, 강원도와 함경도의 여덟 고을에 화재를 당한 인가(人家)가 무려 2천여 가 호였다.



불망비 비각

당시 강원 감사 김시연(金始淵)은 양양부(襄陽府)에서 5백 51호(戶), 통천군(通川郡)에서 4백 72호, 간성군(杆城郡)에서 4백 86호(戶)의 민가가 연소 되는 사건이 발생했음을 임금께 아뢰었는데 보고를 받은 임금은 이천부사(伊川府使) 남종순(南鍾順)을 내려보내 재해를 당한 백성들을 위로하도록 하였다.

정원기는 벼 500석을, 그 외 주민들은 소지한 금전을 출연

재해를 당한 백성들의 딱한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정원기와 성균관 진사로 있었던 그의 아들은 함께 논의하여 벼 500석을 내어 피해를 당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외 이 고장의 김연수(金演秀)·정우현(鄭禹鉉)·이민신(李敏信)·이검(李檢)·김동국(金東國)·김현규(金玄圭) 등도 각자 가세(家勢)에 따라 재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금전을 출연(出捐)하였다.

강원 감사 김시연은 양양부의 상황을 임금에게 보고

강원 감사 김시연은 양양 부사(襄陽府使) 서경순(徐敬淳)의 보고내용을 올렸는데,

“환란(患亂)을 당했을 때 서로 도와주는 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풍속입니다. 고장의 백성들이 의연금(義演金)을 출연하여 다급한 처지에 놓인 사람을 구해 주었으니, 그 뜻이 가상(嘉尙)하였기에 김연수 등 6인에게 그 공로에 상당한 포상으로 향임(鄕任)의 직을 파격적으로 우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만, 정원기에 대하여는 의정부에서 관례를 상고하여 임금의 명을 받아 처리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라고 상계(上啓)하였다.

비변사(備邊司)에서 임금에게 보고 오위장 벼슬을 승인

역시 비변사에서도 향인(鄕人) 가선대부(嘉善大夫) 정원기(鄭元基)가 정조(正租) 5백 석을 의로운 마음으로 구급(救急)하였으니 그 뜻이 가상하여 특별히 보답하고 권장하는 은전이 있어야 마땅함으로 의정부로 하여금 전례를 상고하

게 하였으며 “품계가 이미 가선대부이니 실제로 근무하는 벼슬인 오위장(五衛將)의 직책이 어떻겠습니까?”라고 상계한바 임금께서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傳敎)하였다.

철종은 정원기에게 철비를 하사(下賜)하다.

철종은 ‘많은 재물을 거둬 베풀어 백성을 구휼(救恤)하고 화재로 인한 나라의 재난을 극복하게 한 공로를 가상히 여겨 가선대부 오위장(嘉善大夫 五衛將)의 관직을 특수(特授)하고 철종 11년 경신 12월(1860)에 가선대부오위장정원기불망비(嘉善大夫五衛將鄭元基不忘碑)라 양각 주조(陽刻鑄造)한 철비를 하사하니’ 주민이 자진 동원하여 강현면 석교리에 비각을 건립하고 기려왔다. 그러나 세월 따라 비각도 낡아 허물어지니, 1972년 8월 1일 공의 증손 정주화(鄭周和)의 주선으로 문중에서 양양읍 조산리 마을 안 아늑한 곳에 비각을 새로 짓고 공의 불망비를 옮겨 설치하였다.



불망비



영일정씨 정원기 족보

정원기 철비에 양각(陽刻)된 비문을 살펴 본다.

○앞면 : 嘉善大夫五衛將鄭元基不忘碑(가선대부오위장정원기불망비)

〈찬 시〉

倡義卹災 彤庭褒功(창의홀재 동정포공)

재난을 정의롭게 구제하였으니, 나라에서 포상한다.

再施千貲 蒼生誦惠(재시천자 창생송혜)

천금의 재화를 거둬 베풀었으니, 백성들은 은혜를 칭송한다.

○뒷면 : 咸豐十年庚申十二月日 暨(함풍십년경신십이월 일 수)

1860년 12월에 세움.

본 철비는 당시에 처참한 재해를 입은 백성들을 위해 사재를 아낌없이 내어준 정원기(鄭元基)의 가룩한 뜻을 기리기 위해 나라에서 철비를 내린 특별한 경우이어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적선(積善)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다.

(글·사진 : 양양문화원)

鄭元基는 迎日 鄭氏 27代 孫으로 조선 순조 1년(1801)에 태어나 고종 1년(1863)에 사망하였으며, 字는 여경(汝經)이다. 공의 부인은 정부인안성이씨(貞夫人安城李氏)이다. 강현면 석교리에서 생활하였으며 시문에 재능이 있고 풍류를 즐겼다고 알려져 있으며, 묘지가 강선리 뒷산 선영에 있다. 자식으로는 현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진사가 된 정우용(鄭禹鎔)이다.



드라마 펜트하우스3 박호산 배우, 웃음 주는 양양군 홍보영상 제작

양양군이 제작한 홍보영상이 딱딱했던 자치단체 홍보 영상의 이미지를 벗어나 누리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양양군이 이번에 제작한 '알지? 양양 핫한 거' 홍보 영상은 평균 시청률 17%를 자랑하는 드라마 '펜트하우스 시즌3'에 출연중인 배우 박호산을 주연으로 반복적인 음원과 기획력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영상에는 다양한 컨셉을 한 박호산 배우가 양양테마송에 맞춰 율동을 하고, 배경에는 양양 송이, 연어, 서프보드, 파도 등 양양군의 대표적인 이미지의 사진과 일러스트로 구성되어 레트로 감성을 자아낸다.

박호산 배우가 부르는 양양테마송은 '양양양 양 양양양~'이라는 중독성 강한 멜로디가 귓가에 맴돌며 계속 흥얼거리게 돼 '양양'에 대한 이미지를 임팩트 있게 잘 살렸다는 평가다.

양양군 SNS 주소

블로그 : <http://blog.naver.com/likeyyang>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yangyangcity_official/

양양군, 2대 대표축제 군민 안전 위해 미개최 결정

양양군과 양양문화재단은 지난 달 6일 긴급 이사회의를 열고 '2021년 양양 송이·연어축제를 미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올해는 예년과는 다르게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프로그램으로 축제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송이 축제와 연어축제를 미개최 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양양문화재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군민과 관광객에게 위안과 즐거움을 주기위해 그동안 차근히 준비를 진행해왔으나,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임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지년해와 올해의 아쉬움을 발판 삼아 내년에는 다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롭고 풍성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양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연세대학교 원주 LINC+사업단과 업무 협약식 가져

양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연세대학교 원주LINC+사업단은 지난 달 17일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적 가치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서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양 기관의 공동노력으로 양양군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함이다. 또한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양양군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주민생활 여건 개선을 도모하는데 협력할 예정이다.

안선민 양양군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식으로 양양군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 LINC+사업단과 함께 협력하는 도시재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꾸준한 협력을 통해 좋은 결실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양군보건소, 2021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양양군보건소가 관내 만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2021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건강조사는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만 19세 이상 성인 866명을 대상으로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조사항목은 흡연, 음주, 정신건강, 건강행태와 고혈압 당뇨병 만성질환과 손씻기 실천, 방역수칙에 대한 인식 및 준수여부 등 코로나19 관련설문 문항이 포함된 18개 영역 160개 문항에 대해 진행되며,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들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해 전자조사표가 탑재된 태블릿 PC를 이용해 1:1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은 표본가구에 미리 안내 통지문을 발송해 참여 협조를 구하고, 각 마을 및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2021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대한 사전 안내를 완료했다.



3·1만세운동의 주역 '조화벽 거리' 탄생

양양군은 양양 3·1만세운동의 중심지였던 양양읍 남문리에 3·1운동의 상징경관인 '조화벽 거리'를 조성했다.

양양군 도시재생센터와 공동 주관한 '조화벽 거리'는 'Level Up! 남문리 마을계획단' 사업의 일환으로 '역사를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리 만들기'라는 주제로 조성되었다.

양양읍 남문3리 최선남 이장을 비롯한 주민 주도로 진행된 '조화벽 거리' 조성은 강원도에서 가장 강렬하게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양양군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거리 이름은 양양의 대표적인 여성 항일 운동가 '조화벽 지사'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조화벽 거리는 양양 3·1 만세운동 당시 만세 합창을 부르며 행진했던 양양읍 남문리 16-5번지 일대 138m 구간에 △안내판 △'조화벽 거리' 글자 조형물 △태극기 바람개비 △무궁화 조형물 △이정표 등을 설치했다.

또한 이 구간에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3·1만세운동의 역사를 담은 벽화를 그렸으며, 조화벽 지사 초상화, 함흥기 열사 소개 글 등으로 양양 3·1 만세운동을 상징하는 테마 거리를 조성했다.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본격 추진

양양군이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하여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최근 10년 동안 관외거주자가 취득한 소유농지와 농업법인 이 소유한 농지(2021.5.31.일 기준)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법인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 등 농지소유 요건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 임대차 등 농업경영 이용 여부, 농막 및 성토에 대한 농지법 준수 여부, 농업법인 농지 소유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관내 21개 해수욕장 수질·토양 '안전'

군은 해수욕장 개장 중인 지난달 28일 관내 21개 해수욕장, 65개 조사 위치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했으며, 모든 해수욕장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수질 조사항목은 장구균과 대장균 2개 항목으로 장구균은 100CFU/100mL 또는 100MPN/100mL이 하, 대장균은 500CFU/100mL 또는 500MPN/100mL 이하여야 적합하다.

또한 토양은 개장 전인 지난 6월 24일부터 29일까지 검사를 실시했으며, 비소, 카드뮴, 납, 6가크롬, 수은 등 5개 항목의 검출여부를 확인한 결과 비소, 카드뮴, 납은 미미한 양만 검출되었고, 6가크롬과 수은은 모든 해수욕장에서 불검출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질·토양 검사 결과, 올 여름 양양군 관내 모든 개장 해수욕장은 관광객들이 마음 놓고 피서를 즐길 수 있는 청정해변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외딴 곳 '나홀로 문화재' 첨단 방재시스템으로 지킨다

양양군은 문화재 안전관리를 위해 첨단 방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문화재 및 전통사찰 등의 방화와 소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문화재 지키기 첨단방재시스템이다.

이번에 구축하는 IoT 방재시스템은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양양군 소재 '나홀로 문화재' 4개소로 △진전사지 도의선사탑(보물439호) △선림원지 삼층석탑(보물 444호) △선림원지 석등(보물 445) △오색리 삼층석탑(보물 497)이다.

총사업비 2억5천만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지능형 CCTV, 적외선 감지기, 경보기 및 경광등이 포함된 문화재 IoT 방재시스템을 구축한다.

지능형 CCTV는 화상 감지를 통한 문화재 도난과 불법 침입을 예방하고, 적외선 감지기는 CCTV 사각지대 보완 및 출입 감지를, 경보기 및 경광등은 출입 통제구역 출입 시 안내와 경고 방송을 송출한다.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안전한 장보기 환경 개선

양양군은 양양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사업으로 안전한 장보기 환경을 개선하였다.

군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9천800만 원을 들여 개별점포 63곳의 낡은 전선과 노후 분전반 등을 정비했다.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어 화재에 매우 취약한 가운데, 화재 원인 대부분이 누전 등 전기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통시장의 화재 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누전, 합선인 점을 고려해 개별점포 옥내 배선, 불량콘센트, 분전반 등을 교체해 화재 위험 시설에 대한 정비와 함께 안전검사까지 마쳤다.

양양, 어제 그리고 오늘

현남면 남애항



1966년



2021년

우리는 생의 강물 따라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다.
 그 사이사이 그리움도 흘러가고 있다.
 만나고 헤어지고 하면서 삶의 무대는 다음 장으로 넘어간다.
 또 다른 새로운 무대의 풍경,
 그 빛과 환희와 슬픔의 흔적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바람의 항구 / 이재연〉

이달의 책이야기



그림들의 혼잣말

조선진 지음 | 니들북 | 2021. 8월



- 1장. 어디에도 보여주지 못한, 꼭꼭 숨겨둔 마음에게
- 2장. 그렇게 조금씩 다듬어가는, 수줍은 행복에게
- 3장. 어쩌면 함께일지 모를, 모든 누군가에게
- 4장. 조금 다른 눈으로 발견하는, 오늘 또 하루에게

카페 메뉴판, 오래된 건물 벽, 여행지 풍경 우연히 만난 그림들이 들려주는 나다움의 언어.

“이젠, 좋아하는 걸 참지 않기로 했다”. 때로는 미술관에서, 때로는 컵 홀더에서, 때로는 작은 간판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그림들을 일상에서 마주치곤 한다.

더 나아가 어린 시절의 기억이나 훌쩍 떠난 여행지의 아름다운 풍경이 프레임 속에 남아, 우리 마음속에 한 장의 그림으로 저장되기도 한다.

이렇게 세상 모든 그림들은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느낌과 감정들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감의 언어로 바뀌낸다.

이 책은 인기 일러스트레이터인 저자가 일상에서 수집한 이미지들을 펼쳐놓고, 자신만의 말랑하고 따뜻한 감성으로 풀어낸 그림 에세이다. 우연히 마주친 그림들이 들려주는 일상의 예쁨들과 그 속에서 발견하는 ‘나다움’의 언어를 만나보자.

책속 한구절

■ 하지만 살아가며 그려왔던 수많은 형태의 그림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꿈을 그린다는 것, 사람을 그리워한다는 것, 나의 삶을 그린다는 것. 그 형태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아주 가끔 내가 그리던 그림을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지금을 살아가는 나의 삶과 시간은 더 단단해질 수 있을 테니까.

이달의 추천 신간도서

이제, 좋은 어른이 될 시간

김혜영 지음 | 연암사 | 2021.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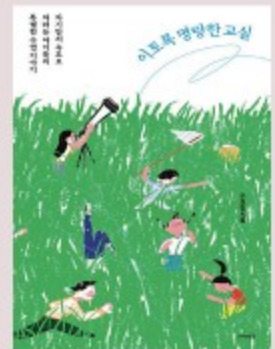
어쩌다보니 어른이 된 우리, 좋은 어른이 될 시간입니다. 좋은 어른이 필요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그 책.

아이들의 왕따, 직장 내 갑질, 사회적 차별과 혐오 같은 비윤리적 행위는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일상에서 반복되는 현상들이며, 매 순간 우리의 선택을 요구한다.

당신이 이런 상황에 맞닥뜨린다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질문에 곧바로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준비 없이 어쩌다 어른이 되어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이토록 명랑한 교실

주효림 지음 | 메멘토 | 2021. 8월



우리 반 학생들은 장애 또는 장애를 경험할 확률이 높은 아동들이다. 나는 이 아이들을 ‘들꽃’이라고 부른다. 들꽃처럼 수수하고 투박하지만 저마다 아름다움이 있는 아이들이다. 가만히 보아도 예쁘고, 자세히 보아도 예쁘고, 스쳐 지나가다 보아도 예쁘다. 내 눈에는 그렇다.

일반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맡아 장애 아동들을 가르치는 7년 차 특수교사의 교단 에세이. 열정만 활활 불타올랐던 초임 특수교사가 야심차게 준비한 첫 수업이 망하면서 시작되는 진짜 수업 이야기. 내내 유쾌하지만 문득 눈물이 툭 터지게 하는 특수학급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그려진다.

글·그림 출판사 제공 자료 발췌



문화가 있는 날

라떼시네마
DVD 무료 상영회

이웃집 토트로 ALL

9월 29일 (수) 4회 상영
11:00(터닝) / 14:00(터닝)
16:30(자막) / 19:30(자막)

영화관 안내데스크에서만 예매 가능
9.25(토)부터 현장 방문 선착순 1인 2매
문의: 033-673-7050

* 영화와 개봉날짜는 배급사와 영화관의 사정으로 변동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양양 작은영화관 홈페이지(<https://yangyang.cinema.org>)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033-673-7050



양양군일자리지원센터 추천 일자리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에너지과
TEL. 033)670-2289 / FAX. 033)670-2303

사업장명	모집 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심주종합건설(주)	1명	건축시공기술자 (기술인협회 중급이상)	8:00~16:00 (주6일)	연4,800만원 (협약)
	1명	현장 공무업무 (기술인협회 초급이상)	8:00~16:00 (주6일)	연5,000만원 (협약)
설악환경산업(주)	1명	건설폐기물 분리선별	08:00~17:00 (토요일격주)	월190만원
e관한세심아파트	1명	미화원	09:00~16:00 (토요일격주)	월142만원 이상
영진상사	3명	플라스틱제조원	09:00~18:00 (주5일)	월210만원
진양산업(주)	1명	홍계가공 생산 및 운전	08:00~17:00 (주6일)	월200만원 이상(협약)
유이엔씨 (건설현장)	1명	경리사무원	08:30~17:30 (주5일)	월200만원 이상(협약)
강릉치기두부	1명	두부생산직	08:00~17:00 (주5일)	월190만원 (협약)
주식회사 윤진 (홈마트)	1명	아채 채과 담당 (경력자 우대)	08:00~16:00 (주6일)	월240만원
해강건설 주식회사	1명	토목시공기술자 (공무포함)	08:00~17:00 (주5일)	월200만원 이상(협약)
바다정보통신	1명	컴퓨터설치수리원	08:00~17:30 (주5일)	월250만원 (협약)
남양인디스트리	1명	레이저 오퍼레이터 (경력자)	08:30~18:00 (주5일)	월190만원 (협약)
바다마을아파트	1명	아파트관리원 (조경 및 사설편의 자력증 소지자 우대)	격일근무	월220만원
임조창호	2명	용접기사,창호설치기사	08:00~18:00 (주6일)	월200만원 이상(협약)
	1명	건설공무 경리사무원 (경력자)	09:00~18:00 (주5일)	월190만원 (협약)
신우그린 (설계원급근비치)	5명	골프장 코스관리사	07:00~17:00 (주5일)	연2,800만원

강원 양양군

민방위사이버보충교육안내

2021년도 민방위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이버교육(1시간)으로 실시됩니다.

교육대상 양양군 소속 상반기교육 미이수 대원

교육기간 2021. 9. 1.(수) ~ 10. 15.(수)

교육시간 1시간 ※24시간 접속가능

교육문의 1566-8448

(평일 09-18시, 주말 & 공휴일 휴무)



민방위교육 바로가기

18-49세 코로나19 백신(화이자) 예방접종 : 8. 26. ~ 9. 30.

- 접종대상 : 4,588명(18-49세 연령층)
- 접종장소 :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센터
- 문의사항 : 양양군 보건소 (☎033-670-2540)

2021년 강원도·양양군 사회조사 실시 : 8. 27. ~ 9. 13.

- 조사대상 : 관내 750 표본가구 내 만 13세 이상 가구주·가구원
- 조사인력 : 22명(조사원14, 관리자 3, 입력·내검원5)
- 조사방법 :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인터넷조사 및 가구방문 면접조사
- 문의사항 : 양양군청 기획감사실 (☎033-670-2214)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2020년6월~2021년 5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한 착한임대인
- 신청기간 : 2021.6.1. ~ 12.31.
- 감면율 : 임대료 인하액 만큼 100% 감면 (최대 50만원/회 신청 한함)
- 문의사항 : 양양군청 세무회계과(☎033-670-2107)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안내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양양군청 및 읍·면사무소
- 신청대상
 - 양양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서 1세대당 차량 1대 등록가능
 - 양양군에 주소를 둔 법인·단체로서 법인·단체별 1대 등록가능
- 대상차종 : 승용차, 5.5톤 이하 화물차, 32인승 이하 승합차
- 감면횟수 : 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 감면
- 문의사항 : 양양군청 전략교통과(☎033-670-2170)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제도 안내

- 신청기간 : 시행일('18. 8.)로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 보증대상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보증한도 : 4억원 이내
- 한도사정 : 5천만원 이하 - 생략 / 5천만원 초과 - 매출액 1/2
- 보증료율 / 보증기간 : 0.5%(고정) / 5년 이내
- 문의사항 : 강원신용보증재단(☎033-260-0001)

전세대출 통해 주거안정 지원하는

◎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 보증대상
 -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배우자 합산 1주택 이내 (단,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 이하이고,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것)
 - 2021년 7월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보증한도
 - 최대 2억원 이내 (1), (2) 중 적은 금액
 - (1) 임차보증금의 80%
 - (2)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동일인 기 전세자금보증잔액이 차감됩니다.
 - ※ 보증 이용 시 연 0.02%~0.34%의 보증료가 발생하고, 신용평가결과 등에 따라 보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한국주택금융공사 강원동부지사(☎033-660-4711~4714)

국민 누구나 다함께 배우는 디지털 역량교육 "디지털배움터"

- 교육대상 : 원하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수강 가능
- 교육목적 :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 교육기간 : 현재부터 ~ 2021.12.
- 교육장소 : 시·도별 1,000개소의 디지털배움터
- 신청사이트 : <https://www.디지털배움터.kr/>
- 문의사항 : 디지털배움터 콜센터(☎1800-0096)



정보꾸러미

2021년도 산림일자리발전소 그루경영체 추가모집 공고

- 공고주최 :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일자리발전소
- 대상지역 : 2021년도 4기 그루매니저가 활동 중인 10개 지역

경기 군포, 경기 여주, 강원 양양, 강원 정선, 충북 단양, 충북 영동, 충남 보령, 대전 대덕, 경북 청도, 경남 산청

- 지원자격
 -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5인 이상 주민공동체
 - 대상 지역에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주민공동체
 - * 주의사항 : 현재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영농조합법인, 산림형 기업 등으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는 경영체는 선정을 제한함.
- 접수기간 : 2021. 9. 20(월) ~ 9. 26(일)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forestjob04@kofpi.or.kr)
- 지원대상 범위 : 대상 지역별 5개 내외
- 지원기간 : 3년(2021년 ~ 2023년)
- 문의사항 : 지역 담당매니저(☎042-381-5131)

강원 내일을 job 잡아라! 일자리박람회



강원도 최대 일자리 통합 플랫폼

<http://job.gwd.go.kr>

8.23 월 - 9.17 금

8. 23(월) 춘천 "강원LIVE 스튜디오"
개막식 및 취업오디션 **LIVE**

9. 02(목) 원주 국민체육센터

9. 07(화) 춘천 스키이벤트센터웨딩홀

9. 16(목) 강릉 강릉과학산업진흥원

9. 17(금) 홍천 홍천읍사무소



참가방법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제출
* 강원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http://job.gwd.go.kr>) 공지사항 참조

참가문의 (재)강원도일자리재단 | 033-256-9602
강원일자리박람회 운영사무국 | 033-766-0763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어떤 사람들이 해당할까요?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정당의 대표자, 선거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가 상시 금지됩니다.

기부행위란?

정치인 등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

한 번의 예방접종으로 엄마와 아기 모두 지켜요!

임신부라면 반드시 접종!



• 2021-2022절기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안내 •

- **지원대상 :** 임신여부를 확인한 임신부 (산모수첩 등)
*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임신주수에 상관없이 접종 가능합니다.
- **지원기간 :** 2021.9.14.(화) ~ 2022.4.30.(토)
- **접종기관 :**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 (보건소는 방문 전 확인 필수)

의료기관 방문 시 지켜주세요!

- 1 건강상태가 좋은날 예방접종 하기
- 2 보호자와 접종대상자 모두 마스크 착용
- 3 손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 4 대상자, 보호자는 코로나19증상 있을 시 내원 전 알리기
- 5 접종 후 현장에서 15~30분 머무르며 이상반응 관찰 후 귀가

예방접종 도우미 바로가기

안드로이드폰용 QR코드

아이폰용 QR코드

스캔하기

올해도 꼭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하세요!

만 13세 이하 어린이



• 2021-2022절기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안내 •

- 지원대상 : 생후 6개월 ~ 만 13세 어린이 (2008.1.1. ~ 2021.8.31. 출생)
- 지원기간 : **2회 접종대상자** 2021.9.14.(화) ~ 2022.4.30.(토)
1회 접종대상자 2021.10.12.(화) ~ 2022.2.28.(월)
* 예방접종 일정 및 접종회수는 예진 의사와 상담
- 접종기관 :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 (보건소는 방문 전 확인 필수)

의료기관 방문 시 지켜주세요!

- 건강상태가 좋은날 예방접종 하기
- 보호자와 접종대상자 모두 마스크 착용
- 손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 대상자, 보호자는 코로나19증상 있을 시 내원 전 알리기
- 접종 후 현장에서 15~30분 머무르며 이상반응 관찰 후 귀가

예방접종 도우미 바로가기

안드로이드용 QR코드

아이폰용 QR코드

스캔하기



서핑 It'知

맛있는 거

It'知



대상 상금 500만원

- 공모기간 2021.8. 2.(월) ~ 10. 29.(금) 23:59분까지
- 공모주제 서핑 It'知! 맛있는 거 It'知! (양양음식, 카페 등 먹거리)
- 참가자격 전 국민 누구나(자격제한없음/1인(팀)2편이내, 중복 시상 불가)
- 공모분야 동영상(순수창작물)
- 출품규격 30초~1분30초이내
- 접수방법 양양군 공식블로그 참조 _____